우암학원 창학 75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본점·여신사업부·문흥지점·양산지점·운암지점·매곡지점·첨단지점·동림지점·등광주지점·각화지점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517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5월 23일 2025년 6월 18일 수요일

광주, 5성급 호텔은 꿈인가

전방·일신방직 부지 사업자 없어
광주신세계 20일 사업계획서 제출
특급호텔 건립 사업 배제 가능성
5성급 없는 대도시 오명 언제까지

민선 8기 광주시 '꿀잼 도시'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인 '5성급 특급호텔' 조성의 꿈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옛 전방·일신방직 공장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특급호텔은 사업 개시 6개월이 지나도록 호텔사업자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데다, 반년 가까이 협상에 진척이 없던 광주신세계가 20일 제안서 제출 이후 추가 협상 과정에서 사업성 여부에 따라 특급호텔을 제외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전방·일신방직 부지개발 사업자인 휴먼스홀딩스PFV와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18일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를 포함한 전방·일신방직 일원 개발행위 허가 및 기반시설 실시계획이 조건부로 허가할 예정이다.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영향 최소화, 교통체증 문제 해결 등에 대한 조건이 부과될 것으로 보이며, 늦어도 오는 8월께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4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짓는 조건으로 조성하기로 약속했던 300실 규모, 49층 높이의 5성급 특급호텔 건립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점이다. 사업자는 현재까지 진척 사항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며, 업계에선 호텔 유치를 포기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사업자는 광주시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6개월 이내에 호텔 공사 등에 착공하기로 합의해 놓고도, 지난해 고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특급호텔을 운영할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휴먼스홀딩스PFV 관계자는 "일부 해외 특급호텔 운영업체를 만나 제안서를 보내고 참여 의향서를 받아봤지만, 수익성 등을 고려해 선뜻 나서는 업체가 없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호텔건립 무산을 막을 제도적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호텔사업 무산 시 600억 원을 이행보증금으로 하는 이행보증증서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자처럼 '돈 되는 사업(골프장)'만 짓고 공익적 관광시설 조성을 미루는 이른바 '먹튀성 개발 사업'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호텔 유치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업체로부터 600억 원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발업계에서는 "전방·일신방직 사업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600억 원은 큰 액수가 아니다"며 특혜나 다름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역에서 운영 중인 대부분의 특급호텔이 적자에 시달린다는 점에서, '돈 되는 아파트 사업'을 위한 조건으로 일단 '공익적 특급호텔' 건립을 약속한 뒤 600억 원을 내고 호텔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 같은 우려는 광주시와 전방·일신방직 간의 사업 협상 과정에서도 수차례 제기됐으며, 호텔 포기 시엔 사전 '특혜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페널티성으로 아파트 건립 과정에서라도 시민이 이해할만한 수준의 추가 공공기여금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5성급 호텔 프로젝트인 광주신세계가 추진하고 있는 복합쇼핑몰 사업에 포함된 특급호텔 건립 역시 안갯속이긴 마찬가지다.

신세계는 자체 브랜드로 5성급 호텔을 보유하고 있어 건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문제는 광주시와의 협상 조건이다. 그동안 반년 넘게 광주시와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한 광주신세계는 오는 20일, 광천터미널 일대에 추진하기로 한 복합쇼핑몰·특급호텔 건립을 구체화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2면으로 계속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재명 대통령 부부 G7 리셉션 참석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캘거리 한 호텔에서 열린 캐나다 총독 내외 주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국 리셉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이시바, 오늘 한·일 정상회담

G7 정상회의…트럼프 귀국으로 한·미 정상회담은 무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에서의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됐다. 〈관련기사 3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현지시간) 캐나다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됐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개최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원래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정상회담에는 이런 일들이 간간이 있긴 하다"며 "아마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미국 측으로부터는 이같은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저희에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가게 될 경우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 역시 '가장 빠르게 재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듣고는 "그렇게 하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미 정상의 추가 통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계획은 없다"며 "최근 통화를 한 적이 있는 데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귀국할 정도로 화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미정상회담은 무산됐지만, 다음 날 오후 한일 정상회담 개최는 확정이 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 정부와 이 대통령의 외교는 탄탄한 한미동맹 관계, 발전하는 한일협력 관계,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기본 축으로 한다"며 "한일관계는 과거사 등 미묘한 문제가 있지만 미래를 향해 협력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 대화도 한일 간 현안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건설적이고 선순환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만들어가자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장마 온다

20일 새벽부터 장맛비

광주·전남에 20일부터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다.

17일 광주지방기상청은 "19일 밤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마전선이 형성되고, 차츰 남하하면서 20일 새벽부터 광주·전남에 장맛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이번 장마는 평년(6월 23일)보다 3일 빨리 시작된다. 한반도 남쪽의 온난습윤한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에 비해 북서쪽으로 확장해 있어 장마전선이 일찍 북상했기 때문이다.

21일에는 광주·전남지역에 장마전선이 자리를 잡으면서 많은 비가 내려 호우특보가 발령될 수 있다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이후 22~24일까지 장마전선이 남해안에 걸치면서 비가 오락가락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이후에는 장마전선이 북상해 광주·전남은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다.

장마 기간 동안 비가 내릴 때는 기온이 낮아져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소강상태에 들 때는 습도가 높아 무덥겠다.

19일까지 아침기온은 17~21도, 낮기온은 25~32도로 평년보다 1~4도 높게 나타나겠다. 낮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으로 오르고, 일부 지역은 체감온도가 31도 이상 올라 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장마기간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강수 집중 예상지역과 인근 지역에서는 집중호우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취약계층에 더 가혹한 광주시내버스 파업 ▶6면
KIA 오선우 "찬스 때 꼭 치겠다" ▶18면
조인호의 광주·전남 미술사 - 석장승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